

일주문

송광사 제7회 금강산림법회
BTN 이사장 성우 스님은 12월 2일
순천 송광사 대웅전에서 열리는 제7회
금강산림대법회에서 법문한다.

월정사 전나무 숲 생명상 수상
평창 월정사 주지 정법 스님은 최근
산림청이 주관한 아름다운숲 전국대회
최고상인 생명상을 수상했다.

마곡사 김장배추 보시
공주 마곡사 주지 원혜 스님은 11월
25일 김장배추 나눔마당을 열고 소
외계층에 걸쳐 5000포기를 전달한다.

해인승가대 동문회 16대 회장
前 통도사 주지 정우 스님은 11월 17
일 대구 인터블로그호텔에서 열린 해인승
가대회 동문회에서 차기회장으로 선출
됐다.

수덕사 예산산림문화축제 개최
예산 수덕사 주지 지운 스님은 11월
12일 제6회 예산산림문화축제에서
'원효개달음의 길' 개통 기념 숲길 제
함을 개최했다.

문도회 화합과 종단 발전 당부

조계종 원로의원 혜정 스님 12일 입적...16일 원로회의장 거행

서울 도선사 조실 보광당 혜정 스님이 11월 12일 서울 도선사에서 입적했다. 법랍 64년, 세수 81세이다.
조계종 원로의원, 대종사인 혜정 스님 영결식은 11월 16일 도선사에서 원로회의장으로 엄수됐다.
혜정 스님은 "내 바랑 속에 내 살림살이를 적어 놓았으니, 내가 떠나고 나면 보라"며 입중계를 남겼다.
조계종 총무원장은 "보광당 혜정 대종사는 입적에 들기 전 종단의 발전과 청담문도회의 화합을 당부하고, 사제들과 조카상자들이 '스님 후학들을 위하여 한 말씀 해 주십시오'라고 하자 방긋 미소를 보였다"고 전했다.
영결식에는 동화사 조실 진제 스님을 비롯한 원로의원 스님들과 조계종 총무원장 지승 스님을 비롯한 주요 스님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지승 스님은 추도사를 통해 "혜정 스님은 언제나 후학들에

게 수행자의 위의를 강조하고 시은은덕과 근검절약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혜정 스님은 1948년 문경 봉암사에서 중수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60년 부산 범어사에서 동산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해인사 승가대학을 졸업한 이후 1949년 봉암사 선원에서 수선안거 이래 제방 선원에서 수선 안거 했다. 중앙종회의원과 대구 동화사 주지 등을 역임했으며 2007년 11월 원로의원에 선출됐다. 2008년 10월 해인사에서 종단 최고 법계인 대종사를 품수했다.
은사인 청담 스님을 비롯해 성철·한암·서운 스님 등 당대 선지식들에게 가르침을 얻었으며 북한산 문수사에서 후학 양성에 매진해 왔다. 특히 스님은 생전 27년에 걸쳐 중장한 북한산 문수암에 주석하며 등산객들에게 점심공양을 대접하고 즉석에서 법문을 한 것으로 유명하다.
조동섭·노덕현 기자



혜정 스님 열반계
今日去捨身(금일거사신)
無形唯一人(무형유일인)
三角山前舞(삼각산전무)
石人笑點頭(석인소점두)

오늘 이 몸을 버리고 가는 형상이 없는 오직 한 사람이 삼각산 앞에서 춤을 추니 돌사람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네

- 혜정 스님 행장
1948년 경북 문경 봉암사에서 청담 스님을 은사로 득도
1949년 봉암사에서 지운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수지
1959년 범어사에서 동산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
1958년 8월 공주 동화사 불교전문강원에서 운허 스님으로부터 초종과 사교과 수로
1959년 해인사 재무국장
1959년 해인사 승가대학 대교과 수료(2회)
1960년 총무원 교무국장
1963년 성균관대 동양철학과 3년 중퇴, 한대불교협회 문화부장
1964년 태국 삼프라이 불교대학 1년 수료
1979년 학교법인 청담학원 이사
1980년 6월 대구 동화사 주지
1981년 2월 중앙종회 의원
1981년 3월 국제포교사
1983년 서울 직할교구 문수사 주지(현재)
1986년 3월 서울직할교구총회 부의장
1995년 3월 민주평통 자원위원
2001년 민주평통지원회의 상임의원 겸 총로구 교문, 법무부 교정의원(현재)
2003년 2월 도선사 호국문화원 원장, 청담정학문화재단 이사
2006년 도선사 조실
2007년 대한불교조계종 원로회의 의원
2008년 대한불교조계종 대종사 품수

매일 50여 시민에 무료 침뜸
여수 자비정사 우암 스님

"힘든거 없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시민들에게 봉사활동을 하는데 아플 틈도 없어요."
나이 70세이 넘으면 흔히 고희(古稀), 종심(從心)이라 하여, 예로부터 '70세가 되면 뜻대로 행동한다'라는 의미를 갖는다.
여수 자비정사의 우암 스님(사진)은 칠순을 훨씬 넘은 나이에도 지역사회에 자원봉사활동을 펼쳐 귀감이 되고 있다. 스님의 활동은 교통자원봉사, 범죄예방활동, 뚝, 부황 등 다양하여 이미 전남도지사, 광양시장, 광양경찰청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았다.
우암 스님은 최근 5년 전부터 어린 시절 은사스님으로 부터 배운 뜸과 부황으로 인근 시민들에게 자원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
스님은 봉사의 의미에 대해 "사찰의 이름을 자비정사로 지으면서 자비실천을 마지막 소임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자비는 몸으로 하는 실천이다. 자기 스스로 회향하는 마음으로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스님은 경남 남해에 있는 사찰을 정리하고,



전남 여수의 봉산초등학교 입구에 허름한 2층집을 얻어 사찰을 꾸미고, 매일 50여 시민들에게 무료로 뜸과 부황으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무료봉사가 임소문이 나 하루종일 뜸이 없다고 한다.
우암 스님이 이런 남다른 봉사활동을 한 계기는 스님 스스로 청각장애를 갖고 있어 누구보다 힘든 사람의 마음을 알고, 힘든 유년생활을 보낸 이력에서 나온것이다. 특히 스님은 전쟁고아로 자주 금성사에 출가했다. 은사 스님에게 어려서부터 배운 학문을 많은 이들에게 회향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에
불자 광영진 문화체육비서관

이명박 대통령은 11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에 광영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54)을 내정했다.
광 내정자는 경북 청도 출신으로 불자로 알려져 있다. 한국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행정고시 25회 출신으로 문화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장, 예술국장, 문화체육관광부 중무실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광영진 비서관의 후임으로 김석봉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실 선임행정관(47)을 내정했으며 기획비서관에 신용출 선임행정관(46)을 내정했다. 또 행정자치비서관에 윤한홍 대통령실장실 선임행정관(49), 위기관리비서관에 최수용(55) 한국해양대 초빙교수를 내정했다.
노덕현 기자 noduc@naver.com

바로잡습니다
지난 862호 4면에 보도된 광주불교사암연합회 해향 스님 기사 중 2012년 1월 1일로 보도된 신입회장 취임식을 2011년 12월 20일로 바로잡습니다.

박경석·미셸 카투이라
제17회 불교인권상 수상자 선정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사진)와 미셸 카투이라 서울경기 이주노동자 노동위원장이 제17회 불교인권상을 수상했다.
불교인권위원회(공동위원장 진관)는 11월 11일 선정 소식을 전하며 박경석 대표에 대해 "적수 장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인권향상을 실천해 온 활동가"라고 소개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007년 출범한 장애인 권익보호 단체다.
이와 함께 불교인권위원회는 미셸 카투이라 위원장에 대해 "2009년 이주노동위원장에 선출된 이후 이주민 인권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2006년 한국에 온 필리핀 출신 미셸 카투이라 위원장은 지난



해 7월 이주노동자 노조 제5대 위원장에 선출됐다.
미셸 위원장은 합법노동자임에도 사업장 휴업으로 '허위취업자'로 분류돼 강제 출국당할 뻔 했으나 법적 투쟁 끝에 9월 법원으로부터 출입국사무소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이은정 기자

한국불교학회 '학술진흥상'
최우수상 차차석 교수

차차석 동방대학원대학교 교수(사진)가 2011년도 한국불교학회 학술진흥상 최우수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한국불교학회(회장 김용표)는 11월 17일 동국대 문화관 학명세미나실에서 차차석 교수에게 학술진흥상 최우수상을 이성운(동국대 불교학과 박사과정 수료)씨에게 우수상을 각각 수여했다.
이날 김용표 한국불교학회장은 "차 교수의 <섭산계 삼론사의 정혜쌍수설과 교관결수설 비교> 논문이 불교가 도착화되는 과정을 잘 정리한 논문"이라며 "삼론종 스님들이 중도와 이제의 논리체계를 살려 정혜쌍수설을 정리하였다는 구상이 새롭다"고 평가했다.
차차석 교수는 "상 수상을



계기로 보다 활발한 활동을 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한국불교학회는 이성운 씨의 <한국불교 공양의식 일고> 논문에 대해 "종래 한국 불교의 공양의식에 대한 의미와 가치에 대해 새롭게 조명하는 논문"이라고 선정이유를 설명했다.
노덕현 기자

조계종 교육원 국장급 인사
교육국장 가섭, 연수국장 진광 스님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이 11월 14일 국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조계종 교육원 신입 교육국장 가섭 스님, 연수국장 진광 스님, 불학연구소 사무국장에는 석중 스님이 각각 임명됐다.
신임 교육국장 가섭 스님은 태현 스님을 은사로 출가, 1994년 통도사에서 청하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2001년 범어사에서 범룡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받았다. 실천불교 전국승가회 집행위원장, 서울 노인복지센터 관장 등을 역임했다.
신임 연수국장 진광 스님은 법장 스님을 은사로 출가, 1994년 통도사에서 청하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수지하고, 1998년 통도사에서 청하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받았다. 총무원 사서실 사서를 역임했으며 교육원 불학연구소 사무국장 소임을 맡아왔다.
불학연구소 사무국장 석중 스님은 덕운 스님을 은사로 출가, 1997년 직지사에서 녹원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2002년 직지사에서 범룡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노덕현 기자

한글법요와 전통작법으로 올리는 특별 합동 천도재 안내

12월 11일(일) 오전 10시 30분



불교에서 말하는 세계는 단순히 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수준의 세계와 시간의 흐름을 합한 것입니다. 즉 세(世)는 시간의 흐름을, 계(界)는 공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생이 스스로의 명상수행에 의해 존재의 수준(grade)을 높여(up)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열린선원에서는 부처님 깨달음 얻으심 2600주년 성도절을 맞이하여 약2개월 동안 지정기도로 정진하며, 성도절 전에는 밤샘참선 정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바세계에 사는 중생들은 삶의 질곡 속에 지쳐 명상수행 할 용기와 결심을 갖기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천도재는 부처님 또는 보살님 그리고 선신들과 스님들과 재를 지내는 후손들의 노력으로도 수행에 의한 수준높임(up grade)이 가능하여 그 결과 고통이 없는 극락(極樂)에 태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린다, 추천한다는 뜻의 천(薦)과 제도한다는 의미의 도(度)를 함께 붙여 천도(薦度),3업을 맑힌다하여 재(齋)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린선원에서는 삶에 지친 현대인을 위하여 특별 합동 천도재(薦度齋)를 봉행하여 동참재자들의 조상님과 자매질손, 배우자, 태중영가를 천도하고 수행의 의지를 북돋우고자 합니다.
특히 이번 천도재는 영산재 이수자 스님들과 함께 전통작법과 화심곡을 시연하므로 매우 뜻 깊고 풍성한 천도재가 될 것입니다.



서울, 은평구 갈현동 467-1, 역촌중앙시장 2층(6호선 구산역 4번 출구 근처)

저자거리 열린선원 원장 무상법현 합장

문의 및 접수 : 02)386-4755
opentemple@hanmail.net